

# “자재값 상승분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

### 내달부터 ... 6개월마다 조정 '상한액' 탄력 적용

### 광주·전남 올 2만가구 공급 ... 미분양 가중 될듯

#### 국토부, 주택 종합계획

다음달부터는 철근 등 특정 건축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격 상승분이 분양가에 즉시 반영돼 수요자들과 건설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또 사상 최악의 미분양 적체 속에 수도 올해 광주·전남 등 전국에서 50만 가구가 넘는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 초과공급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발표한 '2008주택종합계획'을 통해 건설업계의 적정 품질과 이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

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자체비와 인건비 등 비용 증감 요인을 반영해 6개월 마다 조정하는 등 건축비상한액을 탄력적으로 적용기로 했다.

특히 다음달부터는 '단품슬라이딩제'가 본격 도입돼 건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단품슬라이딩제'는 철근이나 레미콘 등 특정 건축자재값이 15% 이상 뛴 경우 가격 상승분을 분양가에 즉시 반영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건설사가 안고 있던 자체비 인상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주택 구매자들에게 넘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올해 철근값 인상분 만으로도 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최소 35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사 직전인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수요자들과의 고통분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건설될 주택이 수도권 30만가구, 지방 20만1천가구 등 전국 50만1천가구로 목표치를 잡았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1.0%, 9.9% 감소한 것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20만 가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공급량은 되레 늘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전남도 올해 총 2만1천630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공급초과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됐다. 광주는 올해 분양주택 4천722가구와 임대주택 2천500가구 등 총 7천222가구가 건설된다.

전남도 분양주택 1만2천158가구와 임대주택 2천250가구 등 총 1만4천408가구가 지어질 예정이어서 미분양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주택 초과공급 추세로 인해 올해 정부가 새로 지정할 택지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주택 건설업체에 공급될 공공택지는 30.7km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3년(15km)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지난해(65.2km)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기아 전략 차종 '씨드' 20만호 탄생

### 슬로바키아 생산 유럽시장 공략

### 18개월만에 달성 ... '올해의 차' 선정

기아자동차의 유럽진출 성공작 씨드(cee'd) 20만호가 탄생한다. (사진) 기아차는 오는 26일 슬로바키아 질리나에 위치한 유럽공장에서 생산해 유럽전역에 수출하는 유럽 전략차종 씨드의 20만대 생산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생산량은 18만8천782대로, 이달 26일까지 1만1천218대를 보태면 지난 2006년 11월 양산을 시작한지 18개월만에 20만대 생산의 위업을 달성하게 된다. 20만번째 씨드는 3도어 모델 '프로씨드'로 독일 고객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아차는 2006년 말부터 생산한 씨드 기본형 5도어 모델에 이어 지난해 8월과 11월 각각 씨드 스포티와건과 프로씨드를 선보이며 유럽 각국 매체로부터 연이은 호평을 받고 있다.

씨드는 현재까지 10개의 '올해의 차'를 수상하고 자



동차 전문 매체에서 실시한 30개 이상의 비교평가에서 최우수 평점을 기록하는 등 유럽 자동차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1월 '올해의 차 (COTY, Car of the Year)' 평가에서 유럽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준중형급(C-세그먼트) 최고의 차로 선정됐으며, 총 33개 모델(28개 메이커) 중 최종 4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농가 면세유 구입 전용 카드제 도입

### 7월부터 부정사용 제재 강화

오는 7월1일부터 면세유 판매·구입할 때 구매전용카드제가 도입되고,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면세유 제도가 크게 바뀐다.

우선 전년도 사용실적이 1만ℓ를 넘는 농가에겐 적용되던 구매전용카드제가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또 '농업용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제도'를 도입, 농협중앙회(시·군·구)에 의해 지정서를 교부받은 유류취급소만 면세유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특히 부정유류에 가담하는 판매업자는 7월부터 3년간 면세유업무 취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19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일선농협 면세유류 담당자 339명을 대상으로 면세유류 공급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제도개정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림부 면세유 담당관이 참석해 면세유류 공급정책과 제도변경, 면세유류제도의 필요성, 부정유류 방지대책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삼계탕 안심하고 드세요

점심을 먹고 닭·오리 소비확대운동에 동참했다.

농협구례교육원(원장 김보영) 교직원들을 포함해 농협 새내기 직원 80여명, 완도 금일농협 조합원 90명 등 300여명이 최근 구내식당에서 삼계탕으로

〈농협구례교육원 제공〉

## ‘중소 사업전환 기술개발’ 참여자 모집

### 중기청, 이달 말 온라인 접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2008년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한다.

이 사업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업체에게 신기술·제품·공정 등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업체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았거나, 사업전환 계획승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으로 1년 이내에 사업전환에 필요한 개

발자금을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에서 최고 1억원까지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액은 30억원에 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온라인 (<http://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접수 마감일에는 인터넷 접속이 폭주,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마감일 이전에 미리 접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전남도,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립 1억달러 투자협약

### 도,獨 엔비오사와 ... 나주·영암·구례군에 순차 설립

전남도가 세계적인 바이오가스 플랜트사와 1억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 친환경에너지 육성산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전남도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축산농가의 골칫거리인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전기 및 퇴비·액비 생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환경오염 해소는 물론 친환경에너지도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19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 신정훈 나주시장, 서기동 구례군수, 김일태 영암군수, 독일 엔비오사 크리스토프 하크스(Christoph Harks) 사장, 신강이학(주) 조성주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가스플랜트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독일 엔비오사는 전 세계적으로 250여개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실적이 있는 국제적인 바이오가스 전문기업으로 국내에서도 경기도와 전북 등지에 바이오가스플랜트 설치를 진행 중이다.

엔비오사는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1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 1차적으로 나주에 150억원을 투자해 200톤/일 규모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영

암(200톤/일·150억원), 구례(100톤/일·80억원)에 순차적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박 지사는 이날 투자협약식에서 “그동안 전남에서는 지역 우수자원을 축산농가의 골칫거리인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전기 및 퇴비·액비를 생산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인 산업이다.”

다”며 “오늘 투자협약을 계기로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에 전라남도도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은 축산농가의 골칫거리인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할 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인 전기와 퇴·액비를 생산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인 산업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수출입업체 기업활동 적극 지원”

### 광주세관 방문 허용서 관세청장

허용서 관세청장(사진)은 19일 광주세관을 방문해 기업경제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직원들을 격려했다.

허 청장은 이날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하려는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수입물품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 반출입 신고를 생략하는 등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내륙지 수출입업체의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허청장은 또 최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신용담보제도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중소기업의 건의를 받고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신용담보 한도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세관에 이어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한 허청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여객자 통관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www.gwangju.ac.kr

## 일중한의원

고질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한방내과, 한방외과, 한방소아과, 한방산부인과, 한방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성로 100-1 일중한의원

예약전화: 062) 576-1075

전남도 수확도, 운영비 부담, 관음신협으로 모으시오.

## 정기예탁 최고 금리

6.56%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관음신협의 예금금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분	비율	예탁금액	월금리
1년	6.56%	500,000 이상	0.4297%

※ 만기이후에도 관음신협에서 제공하는 7.00%의 특혜금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음신용협동조합 전화: 224-1883, 1921